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09 + 10
SEP + OCT
2020 vol.8

특집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재난사회

사람 사이 교회와 사회봉사, 황성은 영광교회 담임목사

청년, 다녀왔습니다 '베리타스 포럼'과 함께한 어느 대학생 이야기

문화로 세상 보기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구하는 미술가들



ISSN 2671-8731

Contents

SEPTEMBER + OCTOBER · 2020

시선

재난의 의미와 사랑의 실천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재난 사회를 사는 지혜와 소망 | 신국원 04

특집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재난사회

‘코로나 19’ 재난 :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성찰 | 김병연 06

‘코로나 19’와 안전 과학-바른 가치가 바른 길을 연다 | 윤완철 08

재난 현장에서 ‘기아대책’의 회복 사역 | 전응림 10

기후재난과 법, 그리고 기독교 신앙 | 이병주 12

재난 이후, 새로운 평형의 모색 | 손화철 14

사람 사이

교회와 사회봉사, 황성은 영광교회 담임목사 16

섬김의 자리에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서 그저 함께 있는 영광을 | 박영주 20



2020. 09+10월호 | 제8호(통권 223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그 배에서 나와서 걸으라 문주은	22
고군분투한 첫 학기 김은지	24

청년, 일터 이야기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서형석	26
---------------------	----

청년, 다녀왔습니다

‘베리타스 포럼’과 함께한 어느 대학생 이야기 신진	28
--------------------------------	----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재난, 극복할 수 있다 추태화	30
--------------------	----

미술을 보다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구하는 미술가들 서성록	32
-----------------------------	----

책을 보다

신학은 그 시대를 위한 ‘만나’여야 합니다 박경수	34
로베르 쉬망과 유럽연합의 성경적 뿌리 최용준	36
성경읽기, 하나님과 통하기 유은주	38
〈그리스도인 교수를 위한 어처구니없는 생각〉 황영철	40

교회 路

요한서울교회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소개 이정재	42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부모 공동체의 탄생 오현숙	43

소식

사무국 / 관련기관	44
------------	----



재난의 의미와 사랑의 실천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코로나 19’가 지금 전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역사에서 질병 하나가 전 세계 주민들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경우는 별로 없었다. 과학, 과학기술, 특히 의학과 생명공학의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그런 분야들의 첨단에 있는 나라들이 더 크게 허덕이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할 수 있다.

독일 철학자 뢰비트(K. Löwith)는 그의 <세계역사와 구원역사>(Weltgeschichte und Heilsgeschichte, 영어번역 판, Meaning in History)에서 역사발전의 법칙이나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따지는 역사철학은 이제 사라졌고 역사신학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즉 기독교에서만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어떤 사건도 무의미하지 않고, ‘코로나 19’처럼 중요한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라 할 수 없다. 반드시 의미가 있고, 가능하면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많은 종교들은 모든 것이 운명에 따라 일어난다는 숙명론을 제시했고 세속화된 현대인은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은 우연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번 전염병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을 사랑의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은 그럴듯하지도 않고 인기 있는 주장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욥 2:10)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뜻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어떤 고통과 죽음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다 할 수 없다. 비록 쉽게 납득되지도 않고 즐겨 주장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재난을 일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처벌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표현이다. 개인과 사회의 죄를 회개하고 그 이상 범죄하지 말라는 경고며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신호다. 물론 ‘코로나 19’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 누구

의 잘못 때문이라고 꼭 집어 지적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그 죄를 찾아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환경 파괴는 분명히 큰 잘못이며 이 재앙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더 큰 편의와 사치를 위하여 인류는 자연을 지나치게 훼손했고 삶을 너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삶이 자연에서 멀리 떨어져 인공적이 된 선진사회에 더 많은 ‘코로나 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생겨났다. 그런 사회일수록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이웃의 안전을 위한 인간적 배려는 무시하고 오직 치료제와 백신에만 목을 매고 있다. 인공적인 원인에 의한 재앙을 인공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어 오랜 시간 얼어있던 남. 북극 지역이 녹게 되면 그 속에 묻혀 있던 옛날의 병원 바이러스들이 다시 출몰할 것이라 한다. 심각한 위협이다.

그 외에도 가난한 사람은 병들고 죽고 부자는 살아남는 미국이나 병원이나 의사보다는 경기장이나 운동선수들에게 더 투자하는 유럽국가들의 사회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어리석은 개입으로 무수한 사람을 희생시킨 잘못된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게 한 인기영합적 민주주의도 근본적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고 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고, 특히 큰 고통을 가져온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

다른 세계관과 달리 기독교 세계관은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세계관은 기독교적이라 할 수 없다. 종교사회학자 스타크(R. Stark)는 그의 <기독교의 승리>(The Triumph of Christianity)란 책에서 주후 165년에 전염병(천연두로 추측됨)이 창궐하여 황제 오렐리우스를 비롯한 로마 인구의 1/3에서 1/4이 사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길거리에 버려진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했다. 그 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망률은 2/3로 줄었고 그들의 사랑에 감동받아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전염병이 기독교 성장에 크게 공헌했다 한다.

재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대구 동산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방역센터 역할을 자원해서 맡아 잘 수행하였으므로 불교 단체로부터 ‘만해실천대상’을 받았고, 집단 감염으로 욕을 먹은 부산 온천교회는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감염되었던 교인 전원이 혈장을 기부하고 5천만 원을 방역사업에 바치므로 기독교의 체면을 살렸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모임을 강행하다 집단감염 진원지가 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렸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방역에 힘쓰므로 한 사람이라도 덜 감염되게 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며 치료해야 기독교 세계관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FAITH & LIFE**



✍ 글쓴이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6년 도산인상,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 2018년 서울대 사회봉사상 수상.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재난 사회를 사는 지혜와 소망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지금 대한민국은 재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19' 와중에 수해와 태풍으로 이어지는 재해에 모두가 지쳐갑니다. 특히 감염 확산에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가 많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조속히 주님께서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길 간구하며, 동시에 방역의 의무를 솔선수범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번 호는 재난을 바로 이해하며 성경적 소망의 눈으로 넘어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모았습니다. 태풍, 지진, 홍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닥치면 언론엔 갑자기 "신학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 대체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는가? 신은 이 참사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재앙과 재해가 불신앙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에게 재해는 기독교의 배타성이나 창조론이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걸림돌이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신의 존재나 그의 선함을 믿을 수 없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만 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절망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창조질서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삶과 문

화가 파괴와 악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결국 세상은 구원받아 회복될 곳임을 믿을 때입니다.

물론 자연재해는 그 자체로 불 때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통하여서도 신자를 깨우시고 불신자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돌이키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재난의 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김병연 교수님은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교회도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는 훈련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재난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를 밝히고 성경적 관점에서 이를 넘어서는 소통의 지혜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윤완철 교수님은 오늘날 재난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과 비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 것을 권합니다. 대신 인간 생명의 존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인내를 가지고 실천함으로 재난에 대처하라고 합니다. 기아대책에 수십 년을 헌신한 전용림 부회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 회복을 강조합니다.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후재난 위기를 넘어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병주 변호사님은 기후재난에 대해 성경적 반성을, 손화철 교수님은 ‘뉴 노멀’(new normal)이 교회 생활 변화에 가지는 요구와 함의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창립 이후 계속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해 온 창동염광교회와 황성은 담임목사님의 섬김은 재난 사회 속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그래도 여전히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사회봉사라고 합니다. 각종 재난으로 취약계층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지금 특별히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애써 봉사한 좋은 예를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조언을 청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들겠다는 말씀도 감동입니다. 그에 화답하듯 문주은, 김은지, 신진 세 청년들은 철학, 국제관계학, 신학을 기독교 세계관과 통합하는 씨름을 소개합니다. 서형석 형제는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고군분투하는 일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진 형제는 고려대가 주최해온 ‘베리타스 포럼’을 섬긴 경험을 나눕니다.

새로 이사가 되신 박영주 교수님은 동역회 사역이 아주 오래지 않았지만 늘 사려 깊고 진실한 섬김으로 저희 모두에게 도전을 주시곤 했습니다. 항상 특집의 주제에 맞는 영화평으로 써주신 추태화 교수님은 <엑시트>가 보여주는 인재의 아픔을, 서성록 교수님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재난에 직면한 미술계와 특히 미술관의 현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서평에는 박경수 교수님이 <재난과 교회>, 최용준 교수님이 <깊이 뿌리내린>, 그리고 유은주 박사께서 강영안 교수님의 근간 <읽는다는 것>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다. 그리고 웨슬리 선교사님과 황영철 목사님의 외서 해제는 <Outrageous Idea of Missional Professor>를 소개합니다.

이정재, 오현숙 집사님은 요한서울교회(백상욱 담임 목사)의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는 부모가 교사가 되어 성경과 기독교 고전을 통해 자녀들의 안목을 열어주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런 모임의 확대를 통해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특집을 비롯해 모든 분이 넘치도록 귀한 글들로 섬겨 주셔서 큰 감동입니다. 글 하나하나가 너무도 귀하고, 통찰과 한국 사회와 교회를 염려하고 아끼는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재난을 맞은 우리 사회 속에 교회마저 힘을 보태기보다 짐을 보태는 듯한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기쁨으로 섬겨주신 필진과 답고 습한 여름날에도 변함없이 편집과 교정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역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이며,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실천신학)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 변증학)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과 <신앙과 삶> 편집장,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코로나 19’ 재난 :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성찰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독교 세계관은 다음 두 가지 관점으로 재난을 바라볼 것을 가르친다. 첫째, 재난은 타락으로 창조 질서의 구조와 방향이 크게 훼손된 결과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었고, 자연은 인간에 대항하게 되었다. 또 자연을 돌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오히려 자연을 착취하고 학대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이번 재난도 인간과 자연 관계의 왜곡에서 발생한 것이다. 둘째, 모든 재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재난마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능자이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다. 그러기에 이 재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요, 살리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재정립해야 할까. 우리는 타락을 넘어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로 시작된 회복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로 퍼져가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는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두려 했다. 심지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 칭하면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신앙 생활인 것처럼 가르치려 했다. 신도들이 교회로 모이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본래 우리의 사역지가 돼야 할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는 단절되거나 약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살아 있는 ‘축소지향적 공동체’로 변질되었다. ‘코로나 19’ 재난은 한국 교회의 왜곡된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이번 재난은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학대했는지 돌아보게 한다. 그동안 자연은 ‘최대 생산과 최대 소비’라는 인간의 강박적 이상 섬김에 희생당해 왔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불필요한 이동과 활동을 줄여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할 때,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신도들을 독려해 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대형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예배와 기도회, 구역 모

임에 더해 각종 양육 모임이 생겨나면서 교인들의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도 늘어났다. 성경은 토지의 안식을 위해 6년 경작 후 1년은 경작하지 않을 것을 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돌보기보다 남용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

우리는 이제 비대면 접촉을 통해 자연이 느끼는 고통을 줄일 수 있음을 배우고 있다. 올 1학기 거의 모든 대학은 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그런데 학생의 만족도는 예상외로 높았다. 서울대 의대의 1학년 기초의학 과목의 경우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 온라인 강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고 한다. 스탠포드대학교의 니콜라스 블룸(Nicholas Bloom)교수는 중국 온라인 여행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1주 5일의 근무일 중 4일을 재택근무했을 때의 생산성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보다 13% 증가하였음을 발견했다. 또 최근 미국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설문 대상 기업 중 35%가 코로나 19 이후에도 현재의 비대면 근무를 일부라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 교회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먼저 현장에서 진행되는 많은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일정 기간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직장을 잡고 일을 하지만 한국 교회에는 평생 공부만 하는 나이는 학생이 너무 많다. 교회 일로 바빠 교회 밖에서 신앙을 실천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신앙은 실천을 통해 성숙 되지만 한국 교회는 설교 듣고 공부만 하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자연은 학대받고 교회와 사회의 장벽은 높아진다. 교회 활동이 줄어들어 오히려 삶의 균형을 찾았다는 신도도 많다.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었고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다는 간증도 많다. 삶에 여유가 생기니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나아졌다는 말

도 들린다. 교인 각자가 하나님과 스스로 인격적 교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교육의 핵심이라면 이를 굳이 현장에서 목회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집에 가깝다.

교회는 인간과 인간 관계의 회복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번 재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세계 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절반 정도의 가계가 소득이 감소했고 25%의 응답자가 일시적, 영구적으로 실직했다. 섯다운이 풀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작동하면서 경기가 일시 반등할 수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어 집중이 완료될 때까지는 예전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시중에 풀린 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시기 교회는 교회 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교회 예산 중 행사비 등의 지출을 줄여 교회 안팎의 구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재난은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창이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만 원한다면 우리는 재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 19는 물질주의, 성장 지상주의에서 이제 돌이켜 자연과 다른 사람을 돌보는 회복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FAITH & LIFE**



글쓴이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옥스퍼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민국 학술원상,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등을 수상하였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세계비교경제학회 운영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서울대 경제학부 BK21 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코로나 19’와 안전 과학 - 바른 가치가 바른 길을 연다

윤완철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코로나 19’ 바이러스 시대는 영화 같은 현실이 되었다. 그러한 영화는 종종 현실이 되면 안 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익히 준비된 듯하면서도 오히려 더 당황하고 있다.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용어가 반쯤은 체념의 의미로 다가온다. 홍수나 바이러스 창궐 같은 생태계 ‘재난’(災難)은 막을 수도 있는 이른바 인재적 ‘사고’(事故)와 분명 다르지만, 그 피해 과정은 많은 사고로 이루어진다. 낮은 환경이 준 변동성 때문에 정상적 활동들이 정상 경로를 이탈하여 수많은 사고와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나 급류에서의 배 전복 사고 등이 발생한다. ‘재난’과 ‘사고’ 사이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의 반응,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 마음의 반응이다. 세계관은 거기에서 작용한다.

우리는 하늘의 새는 천부께서 키우시며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다(마 10:29). 그러나 안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나(마 10:30), 재난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분의 허락하신 상황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믿는다. 믿음이 좌절할 만큼의 역경은 없다. 가끔 우리는 정말 어찌 해 볼 수조차 없는 가슴 아픈 일들에 망연자실하지만, 그 또한 불가피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살아 있는 동안 각자 분량껏 인내하는 중에 지혜롭게 풀어갈 뿐이다. 재난과 사고를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대응하고 배워가며 또 예측해 보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아니다. 재난이 나면 두려움에 싸이고 직면하기보다 눈을 감고 도망하고 싶어진다. 비극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흉을 찾는데 그것은 일종의 외면과 도피 방법이다. 잘못된 사람을 찾으면 아주 별난 사람이라고 몰아가서 결국 우리를 그와 분리한다. 그래야 다시 그 일이 안 일어난다며 안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은 자기기만이다.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설익은 저널리즘은 마찬가지로 이를 전파하다 못해 아예 앞장서고, 범인을 찾아 제단에 바치는 인신공양으로 종결시키곤 한다. 이 ‘탓하기’, 또는 ‘비난하기’(Blaming) 습관은 오늘날 안전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만연한 해악이다. ‘탓하기’와 짝하는 것은 ‘하인드사이트’(Hindsight), 즉 ‘사후적 지혜’이다. 어떤 일이든 지나고 나면 다 자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누가 용접하다 불냈다는 기사가 뜨면 그 아래 댓글들이 뻗는다. 어이없는 일이고 정상이라면 안 그랬을 것이라는 질타가 즐비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고쳐지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개인 똑똑이는 많은데 다 합치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 제대로된 현대적 사고 분석은 겹쳐진 것이 기본이다. '나'도 그의 상황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기 전에는 '사고'(事故)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해되지 않은 '사고'는 다시 나게 되어 있다. '그'와 '나'를 다르다고 하기보다 같다고 보는 관점이 지혜롭다.

사실 현대의 '재난'에는 원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찰스 페로(Charles Perrow)는 1984년 '정상 사고'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이것은 만연했던 흑백론적인 '사고' 이해의 패러다임을 파괴하였다. 1990년대 이후, 안전 분야에서는 원흉 찾기에 나서면 뒤떨어진 사람이다. 대부분 '사고'는 인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늘 개탄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인재이다. 그러나 현대 안전 과학은 인간의 실수라는 것은 '재난'의 원인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것의 약점에 의한 결과로 본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고'의 원인으로 종종 지목된 사람들을, 그가 변호했던 쫓겨나고 벗겨지고 구박받는 소자로 보실 것이다. 그 소자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그를 함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실 것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의 와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난제 발생 또는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다. 그들만 없었으면 얼마나 달랐겠는가 하는 생각에, 사람들은 당연한 듯 또는 정의로운 듯 돌을 든다. 그러나 '사고'와 '재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 존중에 초점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비난으로 우매해지는 대신, 현실을 수용하고 슬기와 박애와 인간 존중으로 매일 매 상황에서 최선의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을 아주 참을성 있게 지속해야 한다. 그래서 현대적 시스템 안전의 중심은 안전 탄력성이다. 슬기롭게 관찰하고 유연하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경험으로부터 겸

허하게 배우고 최선을 다해 오는 변화를 예상하는 상시적이고 성실한 사이클이 탄력성 즉 '레질리언스'(resilience)의 요체이다. 이것은 누적된 경험과 과학적 사고가 빛은 지혜이면서, 또한 하나님 섭리의 방향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 세상의 참된 원리가 일치하며, 옳은 가치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길로 이끈다는 것이 창조와 사랑의 아버지를 믿는 기독교 세계관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에 대응하며 세계 각국이 이 슬기에 대해 평가받는 현상을 보고 있다. 안전 문화의 시작은 공정 문화이다. 이는 바른 말이 귀 기울여지고 성실함이 껌죄로 배척되지 않는 문화를 말한다. 그러면 배움이 있게 된다. 그리고 소통이 되고 투명해지고 신뢰가 생기고 그것을 토대로 기꺼이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서로 '통합'에 안전이 있고 서로 '막힘'에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간 압제의 불통 사회와 자기중심의 자만하는 문화는 늘 위험성이 높다. '코로나 19'의 시대는 우리가 스스로의 문화를 돌아보고 슬기를 챙길 시간을 주었다. 폭주하던 재물 숭배의 세상에 인간 가치에 눈 돌릴 틈을 주신 것이라고도 생각해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윤완철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학부와 KAIST 석사, 조지아공대대학원(Ph.D. 정보체계학)에서 공부했다. 지난 30년 동안 KAIST 교수로서, '인지공학',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HCI), '인공지능'(AI) 등의 첨단과학 기술분야가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되어 자리를 잡는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시스템안전학회를 창립해서 대표로 섬겼으며, 오래전 <신앙과 학문> 편집장(1996)을 역임했다.

재난 현장에서 ‘기아대책’의 회복 사역

전응림 (목사, NGO 기아대책 부회장)



2004년에 사역하던 지역교회 목회를 접고, ‘기아대책’ 사역에 동참한지 어느덧 17년이 되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때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기아대책’ 사명의 부르심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나는 그동안 기구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긴급 구호 상황을 경험하였다. 2004년 서남아시아를 강타한 인도네시아 쓰나미를 비롯하여,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2008년 미얀마 싸이클론,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2015년 네팔 대지진 등 수많은 자연재난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 이내로 모든 구호 활동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올해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사태는 의료보건, 식량, 경제, 사회 등의 전 영역의 심각한 재난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긴급 구호 수준의 구호 활동을 국내외에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구호 개발 전문기구의 입장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오래전에 읽었던 찰스 셸돈(Charles Sheldon)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라는 책 제목과 동일한 질문을 생각하고, 지금 현실 상황을 돌아보며 미션 NGO로서 부르심에 응답한 미션 수행을 위한 대안을 나누어 본다.

‘코로나 19’ 이후 7개월여 만에 국제통계사이트 ‘월드 오미터’(Worldometer)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020년 8월 2일 현재 1천 8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68만8천59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 세계 78억 인구의 0.23%가 ‘코로나 19’에 감염되고, 감염자 중 3.8%가 사망에 이른 것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2020년 4월 21일 발표한 ‘식량 위기에 대한 제4차 연례 글로벌 보고서’를 통하여 심각한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2억50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억3500만 명의 두 배가량 늘어난 숫자이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32.9%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 대한민국 역시 2분기 성장률은 -3.3%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재난사회는 위와 같이 숫자로 보여지는 외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특히 영적인 부분의 내적 문제가 함께 공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난사회의 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총체적 접근이 크게 도움이 되고 효과적일 것이다. 기아대책 사역은 육체적인 기아의 문제와 재난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한, 그야말로 총체적 차원에서 공공 영역까지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난 발생 초기에는 의료구호, 구호 물품 지원, 보호소 설치 등의 긴급 구호 사업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현장의 필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다투는 긴급 구호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의 형태로 지역사회의 교회와 가정과 리더들을 중심으로 총체적 회복 사역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으로 자립하고, 회복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공동체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다.

재난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존 파이퍼(John Stephen Piper)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개혁된실천사, 2020)라는 책에서 “지금도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다.”라고 고백했다. 우리가 삶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공적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신앙 활동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대면과 비대면의 형식을 넘어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깊은 기도의 영성과 말씀의 묵상,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와 사랑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재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19’ 같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의 물질을 아껴서 이웃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코로나 19’ 같은 재난으로 인해 세상에서 희망을 잃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들이 예수그리스도에게 돌아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별히, 국내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기아의 위기에 몰린 해외의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난 상황이 닥치면 아픈 사람이 더 아프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더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난의 국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의 도움과 나눔의 손길이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 실제로 기아대책은 현재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500여 명의 기대봉사단 선교사들을 통하여 현지에서 떡과 복음으로 영적, 물질적 굶주림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섬기고 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긴급 구호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재난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전응림

국제구호단체 NGO ‘기아대책’ 부회장이다. 장신대 목회대학원, 장신대 대학원(Th.M, 기독교와문화 전공),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목사(예장 통합)로서 대전대덕교회, 안양호계교회, 신림중앙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했으며(1986년-2003년), 현재 한국기독교사회복지 실천학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기후재난과 법, 그리고 기독교 신앙

이병주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사무국장)



2020년 3월 13일, 우리나라의 청소년 19명은 정부의 소극적 기후 대응에 대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했다. 요점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재앙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침해되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 및 인간답게 살 권리,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 헌법위반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책정에 관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다. 나는 이 헌법소원의 담당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헌법소원은, 기후재난으로 인생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청소년 세대 자녀들이, 위기에 둔감하며 오히려 온실가스의 적극적 배출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년 세대 부모들에게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연 기후재난의 위험은 현실적일까?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과장된 위기감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최근 10여 년간 파리협약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후재난의 위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는 기후재난의 현실성

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주고 있다.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인 기후재난의 위험성은 지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현실적 모습으로 생생하게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사태는 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문명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인류가 자랑하는 산업 문명 전체를 한순간에 무력하게 멈추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020년의 세계경제가 마치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초토화될지 누가 감히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도 기후재난의 파국을 두고 추상적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해수면 상승, 기온의 급격한 상승 등 앞으로 닥쳐올 기후재난의 여러 현상들 그 하나 하나는 각각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상의 위력으로 인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후재난의 위기를 법으로 막을 수는 있겠는가? 막을 수도 있고, 막지 못할 수도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전세계적 동의를 국제법적으로 이루어낸 파리협약은 법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막으려는 노력

의 큰 진전이다. 불완전하나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기후 대응을 위한 법적 수단이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소(過小) 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사건 법령들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지면, 국회와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책정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매년 최소한 30% 이상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헌법적 강제를 통해서 실현해 낼 것이 기대됨으로, 결국 법은 기후재난의 위기를 막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성경은 기후재난의 위기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는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는"(계 6:14) 기후재난의 위기를 그저 승인하고 묵인하는가? 성경에 씌어 있으니 그래도 좋거나, 어쩔 수 없다 할 것인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 성경의 종말(심판)은 하나님의 일곱 인(印)을 어린 양이 떼실 때 일어난다.(계 6:1,12). 현재의 기후재난 위기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因)하여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시기를 인간들이 마음대로 앞당길 수는 없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야 한다.

기온 상승의 결과로 야기될 치명적 '기후재난'과 지금 전세계의 일상적, 경제적인 활동들을 일거에 중단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둘 다 '인간의 문명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문명은 그동안 멈추지 않는 속도감을 자랑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문명이 멈추도록 강제하고 있고, 기후재난의 위기는 문명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생의 계명으로 주신 네 번째 십계명, 안식일 계명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또한 지속적으로, '일하는 손을 놓고 쉴 것'을 명하고 있다. 제4계명은 7일마다 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요구하지만, 7년마다 땅을 쉬도록 하는 자연과 노동의 감

축을 함께 명하고 있다. 쉬지 않는 인간의 문명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의 비극은 인간의 문명을 강제로 감속시키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더 큰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스스로를 감속시켜야 한다.

또한 기후재난의 위기는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라는, 제5계명에 대한 심각한 묵상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 모든 부모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집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애쓰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부모들이 집단적으로는 자녀들 세대 전체의 운명을 재앙에 빠뜨리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재난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말인가? 오죽하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부모들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기후 소송으로 직접 나서야 했겠는가? 자녀의 공경을 희망하는 우리 부모들은, 이제 우리를 공경할 자녀들의 생존과 인생을 망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FAITH & LIFE**



 글쓴이 이병주

25년 경력의 현직 변호사로서 기독교법사회(CLF) 사무국장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학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서울영동교회 장로이며 '평신도 대중단체 연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욕쿠스-욕해야 사는 인간>, <평신도의 발견-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회생계획>,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가 있다.

재난 이후, 새로운 평형의 모색*

손화철 (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철학교수)

변화를 견인할 짧은 시간

2020년 벽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19’ 감염병의 유행이 순식간에 전 세계를 덮쳤다.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었을 뿐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삶에 미친 영향도 결코 작지 않다. 교회 역시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여파에 시달렸고, 신앙생활 전반에 이런저런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런데 이 사태가 지나가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이른바 새로운 정상, ‘뉴 노멀’(New Normal)이 도래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분분하다. 이와 약간 결이 다르지만, 지난 10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새로운 기술의 충격과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가 좋은 반면교사가 된다. 기술철학자들이 내린 결론 중 하나는 미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충격에 대응하는 오늘의 기획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기획이 가능한 시간은 짧다. 어떤 변화든 받아들인 새로움은 곧 익숙한 ‘올드 노멀’(Old Normal)이 되기 때문이다.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휩쓸려 간다.

‘(몸으로) 모임’에 대한 도전

‘코로나 19’가 한국 교회를 요동시키고 있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몸으로) 모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를 특징 짓는 주일예배, 모임/프로젝트/공동체, 공간/예배당, 기술, 성장 같은 요소들은

모두 ‘(몸으로) 모임’과 연동되어 있다. 예배는 성도가 모여 드리는 것이고, 교회의 성장은 모임의 성장이며, 예배당, 교육관, 기도원에 집착하는 것도 모임 장소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작은 교회 운동과 가나안 성도 역시 모임의 왜곡을 지적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강조한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대한 칭찬과 비판 모두 그 중심에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자제하려고 하니 문제인 것이다.

급성장이 끝나고 기독교회의 교세가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이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2020년에 불현듯 들이닥친 ‘코로나 19’는 큰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향성 모색의 계기일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 온 ‘(몸으로) 모임’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는 물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같은 신학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새로운 평형을 모색할 부분들이 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평형의 모색: 가능한 기획들

1) 기능성의 강화

그 하나는 사역의 기능성 강화다. 지금까지 예배, 선교, 전도, 봉사, 성경공부 등 교회가 수행한 많은 일들

은 언제나 ‘(몸으로) 모임’을 전제하였다. 그러나 각 활동의 기능성에 좀 더 치중한다면 모임의 중요성은 줄 수 있다. 온라인 예배와 성경공부를 확대하고, 봉사를 하되 성도 개개인이 담당할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2) Sunday Church?

흔히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이들을 ‘Sunday Christian’이라 부른다. 그런데 ‘코로나 19’ 이후 지역 교회는 ‘Sunday Church’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성도들은 주일에만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교회는 다른 봉사활동이나 선교의 직접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사역들은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담당하고 교인들은 거기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목회자의 자리

지금까지 한국 목회자들의 자리가 선생님과 최고경영자를 합친 것과 비슷했다면, ‘코로나 19’ 이후의 상황에서는 그 역할의 분화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이미 목회자들의 사역이 일정하게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어왔는데, 그런 흐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과 경영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4) 공간과 기술 사용의 재검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며 기능적인 공간일 뿐임을 인정해도, 모임을 강조하는 한 예배당의 중요성은 언제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제 그 기능성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집합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간과 기술의 쓰임새에 대한 새로운 정당화가 요구된다. 효과적인 방역과 사역을 위해 어떤 규모와 종류의 공간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5) 교회 연합 사역의 강화

교회의 기능성 강화와 목회자의 전문화는 개교회 중심주의의 지속을 어렵게 할 공산이 크다. 한국 교회는 이를 계기로 연합 사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개교회 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다양한 연합 사역을 개발하고 교회들 간에 과감한 역할 분담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평형에서 새로운 부흥으로

식당들은 ‘코로나 19’ 이후 테이블을 서로 멀리 띄우고 개인별 반찬 종지를 제공하고 배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살길을 찾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개교회는 개교회 나름대로, 교단은 교단대로, 한국 교회 전체는 전체로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 우리가 가진 물리적 자원과 사회적 구성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현실적인 재평가와 조정이 필요하다. 가장 나쁜 대처 방안은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고집하면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다. FAITH & LIFE

*이 글은 2020년 8월 27일 포항제일교회에서 ‘지도에 없는 길, 우리 손에 나침반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축약한 것이다.



글쓴이 손화철

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철학교수이다. 서울대 철학과 학부와 벨기에 루뱅대학원(Ph.D, 기술철학)에서 공부했다. 저서로 <현대 기술의 빛과 그림자: 토플러와 엘릴>,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공저),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공저), 역서로 <불평할 권리>가 있다. 곡강교회 집사이다.

교회와 사회봉사 황성은 영광교회 담임목사

지난 2020년 8월 14일(금) 서울 창동에 소재한 영광교회(예장 통합)에서 황성은 담임목사를 만났다. 창동 영광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말씀을 일관되고 성실히 실천해 왔다. 최근 한국교회에는 ‘코로나 19’와 ‘홍수’ 등 예상치 못한 범 사회적 재난들 속에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과 정체성 점검에 대한 물음에 직면하고 있다. 재난사회 속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일시 & 장소 2020년 8월 14일(금), 창동 영광교회
인터뷰어 윤현준 (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편집위원)
정리 & 사진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윤현준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간단한 목사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황성은 저는 응암교회에서 자랐고, 현재 창동 영광교회 담임목사입니다. 그전에는 제주성안교회 담임목사, 미국 프린스턴연합교회 담임목사로 섬겼습니다.

윤현준 영광교회는 오래전부터 섬김과 봉사, 나눔 등 사회 봉사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섬겨온 대표적 봉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황성은 우리 교회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섬겨온 사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지역(도봉, 강북, 노

원) 차상위 계층, 약 270세대의 건강보험료를 구청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차상위 계층 가정을 섬기는 '사랑의 반찬 배달'(매월 2회)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 받은 44세대의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월 각 5만씩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노인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염광 소망마을'이라고 해서 교회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합니다. 호스피스 사역도 하는데, 매주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병동을 방문해서 섬깁니다. 우리 교회 장학 사역은 교인과 비교인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 수여합니다. 또 신청을 받아 집수리를 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회' 사역과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봉사 사역, 그리고 도봉구청으로부터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 '도봉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윤현준 이렇게 염광교회가 사회봉사에 일관되게 열정을 가지고 섬기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황성은 가장 중요한 첫 계기는 우리 교회 고(故) 최기석 원로 목사님(1939~2013) 덕분입니다. 염광교회를 1972년 개척하시고 사역해 오셨는데요. 큰 어른이셨고, 세상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영향이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광교회는 처음부터 사회봉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저는 2대 담임목사로 2009년부터 섬겨왔는데요. 그저 원로목사님께서 해오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윤현준 염광교회의 '장애인 사역'은 정말 유명하고 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황성은 염광교회 장애인 사역은 올해로 20년째입니

다. 역시 최기석 원로목사님 때 시작되었습니다. 2대 담임목사인 저는 단지 사역을 조금 더 확장하고 행정적, 법률적으로 조금 더 체계화를 시킨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장애인 사역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우리 교인들도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크게 두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예배공동체 사역입니다. 시작은 2000년 9월, 10명 내외의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10여명 교사들이었습니다. 현재는 연령별 발달장애인 예배공동체, '사랑마을'에 240여 명과 170여 명의 봉사자들, 그리고 '농인마을'에 30여명의 '농인'(農人)들과 30여명의 '청인'(聽人)들로 모이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 선교사역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피어라 희망센터'에서는 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주간에 돌보고 있고, '피어라 희망협동조합'은 직업재활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교회 카페 7명, 베이커리 6명, 가게 1명 등, 총 14명의 발달장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 문화사역으로 '토요아자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현재 31기까지 진행되었고, 매 학기 15개 정도 강좌 개설에 80~100여 명의 우리 교회 및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청으로부터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17년 9월부터 염광교회가 수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제일 어려운 것이 장애인 사역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약 270명의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현재 안타깝게도 오프라인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를 느낍니다.

윤현준 이번 '코로나 19' 사태 국면과 관련해서도 교회 차원에서 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섬김과 봉사의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황성은 교회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평소가진 우리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마침 질문을 주셨으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수개월 전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마스크 구입조차 어렵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성도들이 1~2개씩 급히 가져와 모은 1,100개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그리고 특별 후원금을 그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손세정제 2,000개를 도봉구청을 통해서 기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미자립교회 40곳, 새터민교회 10곳을 위해서도 3개월간 각 5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교단 총회 본부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추천받아, 또 기윤실과 장신대를 통해서도 이번 재난에 어려움을 당한 불우이웃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였고, 재미동포 사회를 위해서도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잠실교회, 주안교회와 함께 15만 불을 전달했습니다.



윤현준 영광교회가 이토록 사회봉사에 일관되게 남다른 섬김을 이어오면서, 목사님 또는 성도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황성은 이 모두가 교회 차원에서는 조용히 하려던 사역들이었고, 결국, 우리 교회는 스스로 광고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는데요, 서서히 세상에 입소문을 타고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영광교회는 다르다,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인정하며 칭찬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교회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이러한 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는 때가 아닌지 싶습니다.

윤현준 초기 한국의 기독교는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사역 등을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귀한 씨앗들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사회의 큰 초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황성은 저는 지금 같은 재난의 국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저 죽을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부해지고 커지고 힘이 많이 생긴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 같은 재난은 한국교회에 단순한 위기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힘을 빼고 겸손하게, 마땅히 할 바를 그저 감당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즉,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Back to the Basics)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한국교회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자랑하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사회적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죽으면 부활이 있을 것이고, 다시 세상도 교회를 자발적으로 칭찬하고 존경하게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윤현준 그렇다면 목사님께서서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19’나 ‘홍수’ 같은 사회적 재난의 국면 앞에서, 더 많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마 5:13~16)으로서, 사회봉사에 동역하려면 무엇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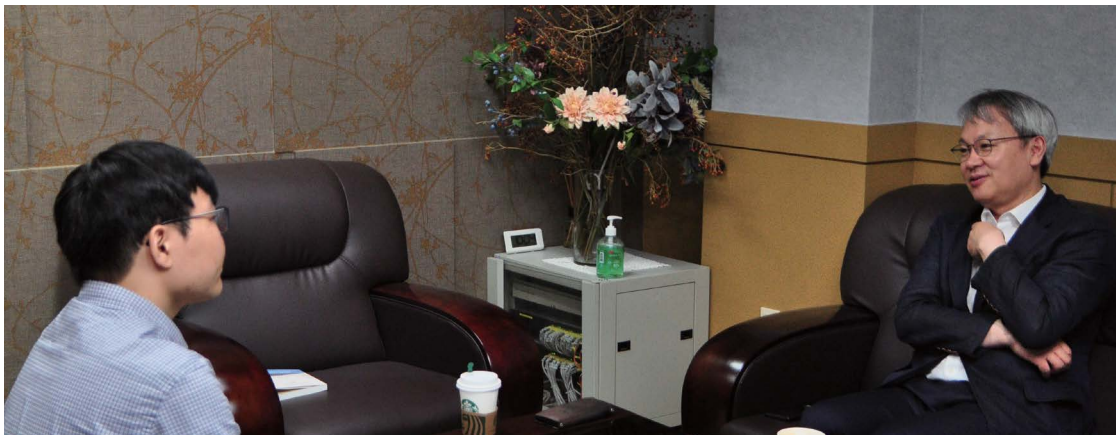
황성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사회봉사가 결코 지역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마 25:40). 영광은 오직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세로 조용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지요. 이것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의 사회봉사 정신이었고, 저도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윤현준 요즘처럼 어려운 사회적 재난의 국면에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감사하게도 여전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약 2:17))이라는 말씀을 교회와 성도의 일차적 소명으로 믿고 가르치며, 구체적 사회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동역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목사님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성은 이러한 재난의 국면에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평소보다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향한 격려와 응원이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르고 의미 있는 곳에서 더 섬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선한 마음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야 하지요. 저는 그렇게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윤현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평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황성은 청년들에게 입을 열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FAITH & LIFE**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서 그저 함께 있는 영광을

박영주 (전(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무슨 배경이었는지 싶지만, 나는 40세가 되던 해에 유학을 떠났다. 어려서부터 막연히 미국 유학은 한번 해봐야지 싶었다. 그 설레임은 필라델피아에 도착해서 각종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사라졌다. 첫 걸림돌은 언어 장애였고, 그다음은 재정적 압박이었다. 어찌 그뿐이었을까? 당시 내 모습을 그리자면, 아직도 밤새워 울고 불며 간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 지면의 당초 목적이 아니기에 자제한다. 다만 그 시절 내가 '신앙과 삶의 통합'이란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짧은 기억에 대해 나누고 싶다. 동역회와 인연은 돌이켜보면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학기 수강한 강좌명은 '교육철학' 관련 수업이었던 듯싶다. 학교의 안내대로 신청해서 들어가고 보니, 담당 교수 맥컬로우(Dr. Marti MacCullough) 박사는 미국 학생들조차 피하고 싶어 하는 어려운 수업과 시험으로 명성이 자자한 분이였다. 후회는 이미 늦었다. 80년대 초, 국립 교대에서 공부한 것이 전부인 나는 수강 취소라는 개념조차 몰랐다. 수업에 성의라도 보이고 싶어서, 교재들을 달달 외우고, 매주 강의 실 맨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을 거의 노려보다시피 하며 고군분투했다. 그 덕분인지 제임스 사이어(James

Sire), 데이비드 노글(David Naugle) 등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들을 약 30% 정도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던 어느 날, 교수님이 강의 중간에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으셨다. 질문의 핵심은 나의 기독교 신앙이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선교회 활동도 했고, 기독교 학교의 교사이기도 했지만, 나는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전업 교사였다. 유학도 교사직을 좀 더 유능하게 해 볼까 싶어서 선택했을 뿐이었다. 적지 않은 기간 교사로 일하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신앙적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난데없는 교수님의 질문을 통해 직면하였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말문이 막혀 눈물을 글썽이던 나에게 교수님이 더 당황하며 얼른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넘기셨다.

나는 그러한 계기로 '신앙과 삶'의 통합을 향한 순례자의 여정에 합류했다. 교회다니는 교사가 아닌 그리스도인 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보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교육 활동 자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강요에

가까운 권유로 교대에 입학했던 내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도 가지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또 교육대학원 강의에서 그날의 당황스러웠던 기억들을 자주 이야기하며 후배 교사들을 격려했다. 다행히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나처럼 무지하게 교직에 들어서는 않는 것 같다. 여러 그리스도인 교사 단체들을 통해, 수업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통합하는 연구 모임들의 덕분일 것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통합 논의에 이론적 근거와 방향을 제공하는 기여를 해왔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구체적인 동참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당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기관지였던 <월드뷰>의 표지 인물이 되는 외국 교수 한 분을 인터뷰해서 기사로 써달라는 의뢰를 받아, 동역회의 사역에 처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나는 교사이자 교장으로서, 그리고 교육학 교수로서 제한된 영역에만 살고 있었지만, 동역회의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자기 연구영역과 기독교 신앙을 공적 삶의 영역에서 통합해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소속된 교육분과에서, 현장 교사들을 비롯한 젊은 연구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 연구를 쏟아내는 학회 활동에서, 무지했던 과거 내 모습을 돌아보며 도전을 많이 받았다.

동역회가 최근 잠시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는 나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 진통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었다고 믿는다. 그 과정들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문제들을 극복하는 신앙과 삶의 통합 여정이었음을 감사하고 있다. 새 기관지 <신앙과 삶>의 편집위원으로 초대된 것도 내심 감사했다. 부족하나마 봉사할 영역을 허락해주셨다는 사

실이 기뻐다. 편집회의를 위해 길을 나서며, 이전에 학생이던 교사들에게 기관지 내용을 소개하며, 내가 의미있는 길을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그러나 2020년 총회에서 동역회의 등기 이사로의 선출된 일은 몸 둘 바를 모르는 과분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다만 선후배님들의 격려에 힘입고, 또 주께서 쓰시고자 섭리하셨음을 믿고, 그저 함께 봉사하는 영광을 누릴 생각이다.

얼마 전, 나는 모든 풀타임 직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소수의 대학원 강의, 오랫동안 마음에만 품었던 어린이 책 집필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 프리랜서 생활은 여유롭고 평안하다. 그러나 가끔 꼼짝없이 퇴직자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두려움도 느낀다. 이제 다양한 현실의 어려움이 굳이 나를 흔들지 않아도 저절로 내 무릎이 흔들리는 나이가 되었다. 폴 트루니에(Paul Tournier)가 <인생의 사계절>에서 묘사했던, 겨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 뭔가 좀 쟁여 놓아주고 싶은 바램이 있다. 동역회 사역에 동역하다 보면 그 일이 조금씩은 더 가능하겠지 싶어 새삼 감사하고 있다. 처음부터 원하거나 의도하지 못했던 이 섬김의 자리이지만, 동역회 가족들과 함께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주신 주님께 씩씩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영주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이다. 미국 컬럼비아인터내셔널 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Ph. D)를 받았다. 전(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연구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햇빛트리니티 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섬기고 있다.

그 배에서 나와서 걸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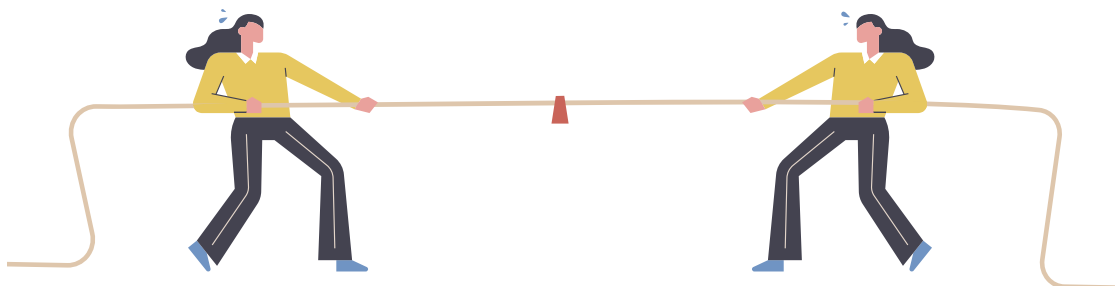
문주는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 박사과정)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 시절에 비교문학과 영문학을 전공했다. 그 시절 나는 반(反)기독교적 문화의 맥락 속에서 현대 대륙 철학과 후기구조주의 사상들을 배우며, 그 저변에 깔린 인본주의 사상과 그 귀결점이 되는 허무주의를 목격했다. 주창자들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입장들에 눈이 가려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었다.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조차 없게 하는 고아와 같은 현시대의 모습이었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실존은 결국 주님 앞에 선, 즉 코람데오(Coram Deo)의 삶인 것을 계속 붙들고 전하고 싶었다. 생명의 진리는 선악과를 따 먹듯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아내는 것이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 안에는 넘치는 자유와 기쁨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또한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했었다.

작년 가을, 용기를 내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부 시절부터 품었던 사명을 좇아서,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기독교학문연구소'(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기독교학문연구소'는 오늘날 인문학과 철학의 담론 속 난제들에 대하여 기독교적 해답을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 방향을 가지고 있다. 조금은 멀게 돌아왔지만, 늦게나마 주님께서 부

르신 길에 와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아침마다 기숙사에서 눈을 뜨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학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잠이 들었다. 이전의 나는 '신앙과 학문'이라는 이 두 세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지만, 이 연구소에서는 마침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기뻐다. 매 수업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나'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점에서 감동이 느껴졌다.

'기독교학문연구소'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일 년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현재 사실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할수록, 기독교 학문 자체 내 여러 갈래로 나뉜 교리들과 새로운 이론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구별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문학 석사과정 때 받았던 인문학적 도전조차 나의 신앙 자체를 이토록 흔들지는 못했었다. 그 당시는 오히려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기에 주님께 더욱 매달리며 공부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그에 반해, 지금의 나는 그렇지 못하다. 상충하는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공존하는 이곳 연구소에서 신앙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교 분석하고 상대화시키는 태도에



더 익숙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특정 교리가 만유의 창조주이신 초월적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 나의 개인적 신앙의 영역에서 언제나 산처럼 든든히, 그 불변의 자리에 계시던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는 학문의 영역에서 각자의 주관적 해석 지평들로 상대화되어 들어오신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도 다소 느낀다. 박사과정 공부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단언할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서,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며 동행한다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

나는 현재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긴장을 지키느라 신앙의 안정감을 잃은 상태로 곧 다가올 가을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려던 베드로를 떠올려 본다. 안정된 기반이 되던 배를 버리고 물 위로 발을 내디딜 용기는 있었으나 함께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해 이내 물에 빠진 그의 모습에서 나를 보는 것만 같다. 어쩌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며 내가 진정한 '나'를 알아가고 있다는 그 황홀함이 독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다.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린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친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아

버지의 긍휼을 붙들며 기도한다. 소유가 아닌 관계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이 짧은 지면을 채울 글을 담담히 써 내려가기가 참 어려웠다. 필자가 예상치 못하게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신앙과 삶의 자리가 복음주의적 진리 안에서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많은 생각의 조각들 때문이다. 필자는 부끄럽게도 개인적 신앙의 영역에서, '재난사회'라는 이번 호 <신앙과 삶> 특집 주제에 걸맞은 재난 수준에 가까운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혼란을 지면에 담아 독자들과 나누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고민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 이 부족한 글로도 혹시나 나와 같은 흔들림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후에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주님이 이 순간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록이 되기를 희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문주은



캐나다 토론토의 기독교학문연구소(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박사과정 학생이다. 중학교 시절 이민 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비교문학 학사와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토론토 큰빛교회와 인천 청라21세기교회 청년이다.

고군분투한 첫 학기

김은지 (고려대 국제학 석사과정)

나는 17살 때,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하였다. 미션 스쿨이었던 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였다.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 기도실이 있어 점심, 저녁마다 30분 동안 기도하였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새벽예배에 자주 나가 기도하였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히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오빠와 언니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였다. 감사하게도 대학교 3학년 때쯤, 엄마, 오빠, 언니가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얼마 전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던 사랑하는 언니에게도 정말로 믿음이 생겼고, 담대하고 자유롭게 변화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니 크게 감사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셨다.

나는 학부 시절부터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 빈곤 및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그 때문에 졸업 후에는 요르단의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에서 일했고, 이제 관련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어 2020학번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원에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전공하고 있다. 대학원생이 되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대했던 다양한 학우들과의 토론 수업을 못 하고, 한 학기 전부를 온라

인으로 수강하였다. 반면에 온라인 수업은 수업 중, 졸아서 못 들었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고, 채팅창에 질문과 답변을 상호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만나지 못한 채 혼자 방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하다 보니 잘하고 있는 것이니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종종 느껴졌다. 고시 공부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현재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해외 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내에서 찾는 자료들만으로 제한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제대학원 학생에게는 통상적으로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았는데, 현재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되어서 해외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기대하며 들어왔던 나는 큰 장애물을 만난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학기 많은 과제 등으로 매우 바쁘게 살았다. 식사와 운동, 예배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공부만 했던 것 같다. ‘코로나 19’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사람 간에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비대면 학교생활에 나름 잘 적응하고 있었다. 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할 일을 묵묵히 할 수 있었기에 감사하다. 나는 ‘코로나 19’ 재난 상황도, 나의 진로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신뢰하며, 매일 성경 말씀을 읽었다. 특별히 감사한 일은 상황만 허락된다면 아침마다 신실한 대학생생 룸메이트와 함께 찬양과 경건의 시간(Q.T.)을 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의 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는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의지가 되니 혼자보다 훨씬 더 성실히 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 교회에 예전처럼 자주 갈 수 없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은혜”를 집에서 많이 경험하였다. ‘코로나 19’라는 이 불확실한 재난의 국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며, 그분이 주신 평안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일어난 여러 악한 일들로 고통받고 있는 자연과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나는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고 싶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도 더 분명하고 명료해지길 바란다. 오직 이 공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위에 쌓아지는 지식이 되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직 구체화 된 비전은 아니지만, ‘국제평화와 안보’를 공부하며 국제관계 속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중 마지막으로, 아빠가 속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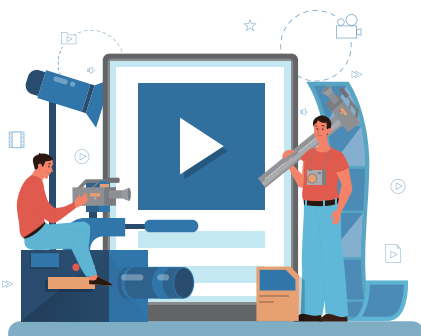
글쓴이 김은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있다. 세부 전공은 ‘국제 평화와 안보’이다. 국민대 정책학부를 졸업하고 요르단 KOICA 사무소에서 ‘영프로페셔널’로 근무하였다. 현재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위한 숙소 공간인 ‘그리스도대사단 공동체’(WAC)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은누리교회 청년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서형석 (광운대 수요채플 간사)



하나님은 흥미롭게도 나를 중학교 시절부터 미디어 사역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음향과 영상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역의 자리에서 경험을 쌓게 하셨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만남의 축복과 배움, 격려받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은 열기가 넘치는 청소년 시절에,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쏟아부게 하셨는데, 사실 그 기간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힘든 고비를 넘기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예민한 사춘기 상황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의 현장에서의 시간 보냄을 통해, 세상과 존재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를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러한 믿음은 특별히 나를 줄곧 미디어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신 섭리를 생각할 때 더 확고해진다. 미디어의 자리는 나의 일터이다. 미디어가 삶의 전반을 장악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여러 방법으로 쓰임받게 하신다고 믿는다.

첫째, 나는 현재 광운대학교교회 수요채플과 지역 교회에서 사운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고, 음악 레코딩과 믹싱 등을 즐겨

해왔던 나에게,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자리라고 믿는다. 돌이켜 보면 나는 중학생 시절부터 주일 1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의 ‘음향 콘솔 FOH(Front of House)’ 자리에서 봉사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모 대형교회 찬양 집회의 드럼 연주와 음향 스텝으로 매주 무대 설치와 음향 믹싱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기에, 현재 지역 교회 음향 간사와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그 중 특별히 스튜디오에서는 녹음, 믹싱 & 마스터링 업무, 그리고 소니뮤직 코리아의 C.C.M. 음원 유통 업무를 이어받은 G.F.M.A.(Gate for Music & Art)에서 음원 유통사와 협업으로 찬양을 제작하고 있고, 현재 전반적으로 위축된 음악 시장에서, 찬양과 팝, 재즈 유통대행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 보급을 위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둘째, 나는 현재 영상 프로덕션 & 포토그래퍼로 일하고 있다. 교회에서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생업으로 이어진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절 여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만남을 통한 배움의 기회들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즉 나는 현재 레코딩 스튜디오의 업무와 병행하여,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연주 영상, 프로필 촬영, 또 외주 업무로 광고 및 홍보영상 제작을 맡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삶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모든 것이 주님께에서 이끄신 여정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개인적 체험이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이끄셨다. 또 언제나 적절하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셨으며, 그 가르침은 항상 놀라운 큰 울림과 삶의 원동력이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현재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영의 양식은 교회학교 전도사님의 동화로 된 성경 말씀, 예배 시간의 말씀, 또 개인적 묵상의 시간 등 다양한 통로로 주어졌고,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데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이제 나의 작은 소망은,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오직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아직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인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비전에 목말라 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말씀을 통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응답도 주셨다. 즉 생업의 어떤 모양새나 주신 달란트에 집착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그의 말씀의 전도자가 되는 삶이다.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 지으신 방향이라는 응답을 주셨다. 이러한 메시지가 현재 나의 삶을 휘어잡고 있기에,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대신, 언제나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또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풍성하다.

앞으로 일과 관련한 나의 비전은 한마디로 미디어 사역을 통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리가 어디든, 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매체이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쓰

임받는 복음 사역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 가령 작년에 해외 선교 현장의 미전도 지역을 방문하여 메모리카드를 활용한 전도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 청소년과 장년층에 매우 반응이 좋았다. 우리는 현지의 언어로 만들어진 성경 콘텐츠(영화, 동화, 찬양, 성경)를 배포하고 사용방법을 전달하면서 자연스레 경계심을 허물고 말문이 트였고, 가정으로 초대받았으며, 복음전파와 영접기도로 인도하는 순간에까지 이르렀다. 성경과 콘텐츠 메모리카드를 전달한 가정에는 '구글 맵스' 기반 '쉐어 바이블 어플리케이션'에 기록하여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중복되는 가정 없이, 수백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연령대마다 적합한 매체로 전달할 수 있었다. 참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는 복음전파를 위한 다양한 길과 방법들이 열려 있다. 현재로서는 사용 가능한 교회 자체 소비 콘텐츠를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접근 방향은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의 시대가 앞당겨 준, 이른바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잘 맞는 선교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기대하며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재난의 시대에서조차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멋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서형석



광운대학교 수요 채플의 미디어 및 찬양 간사이다. 광운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레코딩 스튜디오 인펄슨 뮤직의 디렉터 및 예능교회 음향 간사로도 섬기고 있다.

‘베리타스 포럼’과 함께한 어느 대학생 이야기

신진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베리타스 포럼’(Veritas Forum)은 기독교 최고의 지성들을 초청하여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과학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에 심취되고 있는 21세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변증하는 포럼이다. 1992년 하버드대학에서 시작된 이래 북미와 유럽의 200여 대학에서 2천 번 이상 진행되어 세계적 기독교지성 운동으로 자리잡았고, 한국의 경우 2018년 고려대에서 시작되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언뜻 보면 ‘베리타스 포럼’은 학문적 엘리트들이 주인공이 되어 기독교를 변증하는 자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주인공들은 바로 진실된 질문들을 가지고 포럼에 참여해 진리에 더욱 가까워진 청년들이다. 나도 그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베리타스 포럼’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베리타스 포럼’에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복음과 상황> 2018년 5월호 ‘방황하던 대학생들, ‘베리타스 포럼’을 만나다’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을 넘어선 ‘포스트 진리’(Post-truth) 세계관이 점령한 세속 대학에서 나는 친구들과처럼 진로와 연애와 행복에 대해 꿈꾸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기독교 진리가 이 바벨론같은 세속 대학 속에서도 진리인가?”에 대해 내적 확신이 없어 고뇌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오스 기니스(Os Guinness) 박사님을 한국으로 부르셔서 ‘Truth in a post-truth world’라는 주제로 제

1회 ‘베리타스 포럼’ 강연을 하게 하셨다. 포럼을 준비하는 기간과 포럼 당일 기독교 진리가 정말로 내 모든 고민들의 최종적인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이는 당시 대학교 3학년인 나에게 큰 충격과 감동이었다. 이때의 전율은 내가 3년 연속 ‘베리타스 포럼’을 섬기는 동력으로 작용했고,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그 진리에 맞닿아 있는 일을 소망하도록 했다.

나는 또한 진리에 기초한 학문에 대한 이해와 학문간의 소통을 기다려왔었다. 이는 제1회 둘째날 ‘베리타스 포럼’의 내용을 담은 책 <대화>(복있는 사람)에 대한 서평(뉴스앤조이 2019.7.15.)에 이미 밝혔다. 내 전공과 하나님 나라의 관련성을 찾고 싶었고, 일반 학문의 세계에서도 기독교 진리를 보고 싶었다. 마음속 기대를 보신 하나님은 강영안, 우중학 교수님을 모시고 ‘존재하는 것들: 과학자와 철학자의 기독교적 사유’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셨고, 내 기대는 오히려 작아서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더불어 극단적 양극화 풍토와 계토화된 문화가 자리잡은 한국 속에서 참된 ‘대화’의 가능성을 목도한 것은 내 마음 한켠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후 나는 진리에 기초한 인격적인 대화의 힘을 더 믿게 되었고, 대학에서 이를 적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열매들을 경





힘했다. 또한 다방면의 책 모임들과 기독교 청년 커뮤니티인 랜선교회 모임 등에 참여하며, 이 대화의 기쁨을 풍성히 누렸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함께 진리를 쫓는 보석 같은 동역자들을 만났다.

진리는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에게도 진리였다. 2019년 봄,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은 과도한 학업과 일 뒤에 찾아온 우울증으로 휴학을 하고 조지아 선교지에 가서 얼마간 쉬고 있을 때였다. 그곳에서 2019년 ‘베리타스 포럼’의 강연자로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 교수님이 오신다고 들어 그의 저서들인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Desiring the Kingdom〉, 〈Imagining the Kingdom〉를 읽게 되었다. 그의 책들은 내가 왜 우울증에 빠졌는지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이해의 단초를 제공해주었고, 다시금 전인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상상하도록 내 심장에 불을 지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의 ‘You are what you love’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베리타스 포럼’에 함께했다. 그가 즐기차게 주장하는 ‘사랑하고 욕망하는 인간관’과 ‘문화적 예전’은 무기력에 빠진 한국교회의 예배와 기독교 교육 전반을 성찰하도록 하는 화두와 적용점들을 던져주었다. 또한 일주일간 스미스 교수님을 에스콧하며 글 너머 있는 그의 삶과 신앙 이야기도 직접 들으며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헤어지

기 전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추구로 반짝이는 깊고 푸른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며 내게 신학공부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진지하게 조언도 해주셨는데, 어느새 그것이 기적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0년 초, ‘코로나 19’가 터졌다. 많은 이들이 그렇듯 나도 이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질문들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은 이 시국에 가장 적합한 변증가인 옥스퍼드대학의 수학자 존 레녹스(John Lennox) 교수님을 제3회 ‘베리타스 포럼’ 주강사로 보내주셨다. 올해 포럼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Zoom’과 ‘유튜브’ 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포럼 녹화본은 유튜브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다) 천재 수학자인 레녹스 교수님은 ‘코로나 19’ 사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질서정연하고 명쾌하게 설명했으며, 청중들의 질문에 도 시종 따듯하면서도 진리에 대한 타협 없이 명답들을 줄줄이 내놓았다. 나 스스로도 ‘코로나 19’로 인해 하염없이 미국 유학 비자를 기다리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다시금 눈을 들어 바이러스 정국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베리타스 포럼’과 함께한 한 대학생의 이야기가 나처럼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울림이 되길 소망해 본다. 신실하신 주님은 당신의 질문에 반드시 답해주실 것이다. 다음 ‘베리타스 포럼’이 열리기까지 ‘베리타스’이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져 있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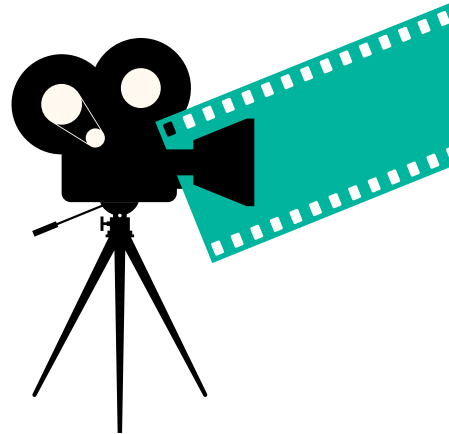
글쓴이 신진

올해 8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보스턴의 고든콘웰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고려대 기독교인연합 학생대표와 ‘베리타스포럼 고려대’ 스태프로(2018~2020) 헌신했다. 선교단체 ABSK 고려대 지부 학생대표이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前) 간사(1990~1992)였던 신호기 목사의 아들이기도 하다.



재난, 극복할 수 있다

추태화 (안양대 신학과 기독교문화학 교수)



<엑시트>
(EXIT, 2019. 이상근 감독)

재난의 일상화

현대 사회는 위험하다. 삶의 곳곳에 불확실성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며 산업화와 개발 경쟁이 극대화되자 자연은 신음 상태에 빠진다. 이른바 자연의 역습, 자연의 보복, 신의 심판이란 말로 해석하며 지구의 종말까지도 언급하는 상황이다. 20세기 들어서는 세계 규모의 전쟁을 두 차례나 치렀고, 여기다 군비경쟁이 가열되어 핵무기가 인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핵 개발의 위험성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태와 그 후유증 등을 통해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세계는 온난화로도 이미 큰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북극, 남극 만년설 지대가 녹아내렸다. 알프스와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했던 만년설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 여름, 중국과 일본에 불어닥친 태풍은 이재민만 5천만 명을 넘어서는 국가적 재난을 불러왔다. 해수면 상승으로 여러 지역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있다. 재난과 지구 종말은 최근에 들어와 일상의 화두가 되었다.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에 진입한 것이다.

재난영화 <엑시트>

영화 <엑시트>(EXIT, 2019)는 재난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전선에서 기회를 엿보던 청년 용남(조정석)은 어머니 칠순 잔치를 하는 중 난리를 겪는다. 억울한 어느 기업인이 대형 트레일러에 정체불명의 가스를 노출시킨 것이다. 이 가스는 순식간에 도시를 집어 삼킨다. 호흡기에 들어가면 죽음에 이르는 살인적 독가스였다. 잔치는 난장판이 되고, 옥상으로 모두 대피하는데 옥상 문이 그만 잠겨버린 상태였다. 용남은 대학 시절 산악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의 주(윤아)와 함께 고층건물을 타고 올라가 끝내 가족들의 구출을 돕는다. 용남과 의주는 가족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스스로 가스 지대를 탈출하려 한다. 이 두 남녀는 천신만고 끝에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살아난다. 해피엔딩 스토리이다.

영화 전체에 깔린 배경은 독가스다. 재난의 일차적 원인은 독가스가 확실하다. 그런데 그 원인이 특이하다. 인재(人災)는 인재인데 현대 사회 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다. 독가스를 살포한 사람은 어느 회사에서 퇴출되었다.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제 퇴출이 되니 원한이 없을 수 없었다. 원한 관계에 의한 복수, 분노 행위인데 현대 사회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갑질이다. 개인이 거대 공룡인 회사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혹 노동조합 같은 단체라면 또 모를까. 이 사람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자 가스 살포를 무기로 삼았다. 인재에 의한 재난으로 사회는 더 혼란에 빠진다. 여기에서 현대 사회에 문제 되는 불공정, 노사관계, 경영진 갑질 등이 드러난다. 재난의 원인은 이미 회사 구조 안에 들어있다. 즉 개인은 집단을 이길 수 없다는 불문율이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인재가 발생할 수 있다. 끝까지 해결되지 못한 개인과 집단 간의 문제가 재난의 불씨가 되고, 수많은 선량한 시민을 위협에 몰아넣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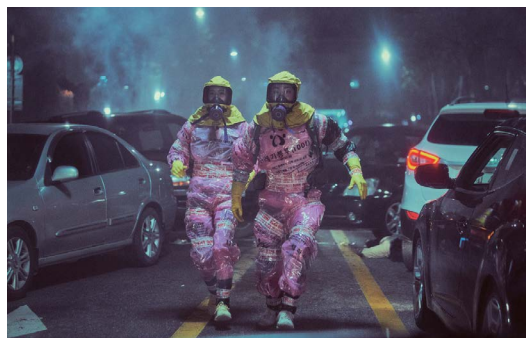
<엑시트>가 보여준 재난 극복

첫째, 인재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영화에 나오는 노사의 갈등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불행이 원인이었다. 현재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할 법적, 행정적 장치는 보완되어 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갑질이 만연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노동자의 권익이 무시되지 않는 공정 사회는 인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재난이 벌어졌다. 재난 가운데 이 슬기로운 가족은 한마음으로 뭉쳤다. 아버지, 어머니를 중심으로 서로서로 가족을 챙기고, 부상당한 식구를 우선적으로 돌보며 옥상으로 올라간다. 아웅성 속에서도 가족에는 빛났다.

셋째, 옥상 문이 잠겨 있는 당황한 순간, 용남이는 가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수직 벽의 건물을 타고 올라간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용남이처럼 가족애를 발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용남이는 끝내 옥상 문을 열어 가족을 구하게 된다.

넷째, 용남이와 의주는 어떻게 재난을 이겨냈을까? 둘은 대학 시절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헤어졌던



그들. 재난 속에서 서로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용기와 담력이 되었다. 재난을 통해 둘의 사랑이 재확인되었고, 둘의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이어진다.

생각케 하는 두 단어, 원한과 사랑

<엑시트>에서 재난은 원한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한을 사지 않도록 하는 관계의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신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신 24:17)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 27:19). 사회에 억울함으로 원한과 분노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다. 혹 재난이 생겼을지라도 사랑으로 대처한다면 극복의 길이 열리게 되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안양대 신학과 기독교문화학 교수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화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구하는 미술가들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95,000개 박물관과 미술관 중 90%가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문을 닫았으며, 10% 이상은 결코 다시 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공립미술관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있으니 아직 걱정할 게 없겠으나 사립미술관의 경우 존재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개인 화랑들의 처지는 더욱 심각하다. 몇 달째 휴관 상태이다보니 이전이 좋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는 언제쯤이나 전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까?

미술관과 화랑의 위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애호가들일 것이다. 미술은 속성상 ‘실제적 접촉’이 중요하다. 유튜브, SNS, 각종 미디어를 통한 전시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직접 체험이 주는 만큼의 감동을 선사하기 어렵다. 인간의 신체성은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술작품의 직접적 경험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술사학자이자 평론가인 조나단 파인버그(Jonathan Fineberg)는 이렇게 우려한다. “우리 삶의 감각은 더 이상 개인적 의미에서 서로 관계하지 않는 일종의 가상공간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의 무대 위에 올려놓아야 하지만 인터넷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경험의 무대 밑으로 밀어낸다.” 그러나 요즘처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인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간접 체험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난은 우리가 피하고 빨리 극복하

고 싶은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인간 됨의 가치를 환기시키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피카소(Pablo Picasso)의 <게르니카>(Guernica)는 나치의 잔혹한 폭격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피카소, 게르니카, 1937

그런가 하면 중국의 장 사오강의 <혈연>은 전체주의 통치 아래 고통받는 중국인을 떠올리게 한다. 일찍이 가혹한 문화혁명을 거친 장 사오강은 우연히 발견한 가족사진을 보고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차분하며 싸늘한 색채의 분위기 속에서 경직된 인물의 표정과 얼굴로 흘러든 상처의 흔적은 크고 맑은 눈동자에 부딪쳐 보는 이의 연민을 자아낸다. 한편 에드바르트 뭉크(Edward Munch)의 <자화상>은 수천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에 전염된 자신을 그린 것으로 잠자리를 많이 뒤척인 듯 시트가 마구 흩어져 있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절규>나 <병든 아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고

통(sufferings) 문제를 다루어온 몽크가 이의 연장선 상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재난의 이슈와 연관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Marcantonio Raimondi)의 판화이다.



이탈리아 전염병을 소재로 한 라이몬디의 판화, 16세기

라파엘의 드로잉을 모작한 이 작품은 이탈리아에 행한 전염병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림의 소재는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에네이드’(Aeneid)를 배경으로 트로이 전쟁에서 패망한 후예들이 타지에서 전염병을 만나 시련을 겪는 장면을 설정하였다. 화면 우측의 남성은 아이를 제지함으로써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죽은 여인의 남편으로 추측되는 맞은편의 남성은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그림 좌측 상단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수녀들의 간호장면을 볼 수 있고 그 아래에는 죽어가는 양들을 지켜보는 목동의 안타까운 시선을 잡아내고 있다. 그 외에도 후경에 묘사된 이야기를 나누는 인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숙의하고 있다. 미술가들은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정체불명의 집단’의 일원’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개별적 인간 존재’로 다루었다. 이때의 감정을 요즘 말로 바꾼다면 ‘공감’이 될 것이다.

‘코로나 19’로 생명을 위협받는 근래에 거리미술가 뱅크시(Banksy)는 영국의 싸우스 햄튼 종합병원에 흑백그림 한 점을 기증하였다.



뱅크시가 싸우스 햄튼 병원에 기증한 게임체인저, 2020

〈게임 체인저〉로 명명된 이 그림은 한 소년이 광주리에 배트맨과 스파이더맨과 같은 히어로들을 제쳐놓고 간호사를 자신의 ‘슈퍼히어로’로 삼았다. 뱅크시는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흑백그림에 불과해도 이곳이 조금 밝아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간호사들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공감 능력을 점점 더 상실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뱅크시와 같은 예술가들이 있다는 자체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 삶이 힘들어도 누구와 함께하나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위로자이자 치료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이웃과 함께한다면 더 심한 재난이 오더라도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갈 수 있으리라.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신학은 그 시대를 위한 '만나'여야 합니다

박경수 (장신대 교회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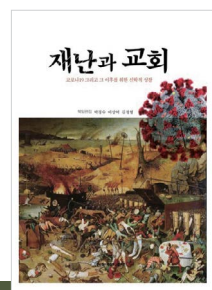


2020년 벽두부터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불청객이 온 세계를 덮쳤다. 바이러스 전염병의 특성상 사람들 간의 접촉과 모임이 최대한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이 권고되고 많은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사회적으로 문화 활동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기본생활조차 제약을 받고 있으며, 심각한 곳에서는 통행과 이동의 자유마저 제한되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새로운 사고와 방향 모색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신학은 그 시대를 위한 '만나'여야 한다.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신학이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생태계 파괴와 인공지능 문제에 대한 답까지 제시하지는 못한다. 복음은 절대적이지만 신학은 상대적이다. 복음은 보편적이지만 신학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신학자는 보편적 복음을 자기 시대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도록 설명하는 그 시대의 신학자여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이 책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봉착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신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작은 열매이다. 부디 이 작은 책이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 먹이는 '만나'와 같은 양식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기본 정신에 따라 '코로나 19'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재난을 당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13명이 이 일에 동참하였다. 임성빈 총장의 '재난과 사회변동, 교회의 역할'은 재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소개한 후, 교회가 어떻게 그 재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지 또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배희숙 교수(구약학)의 '재난과 교회: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구약성서적 성찰'과 김태섭 교수(신약학)의 '신약성경에서 질병과 재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서 학자의 입장에서 질병과 재난을 고찰한 후에,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바라보았다. 박경수 교수(교회사)의 '흑사병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흑사병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했는지를 다루었고, 안교성 교수(한국교회사)의 '교회의 재난:한국교회를 중심으로'는 한국교회가 재난이라는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는지를 살핀 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했다. 백충현 교수(조직신학)의 '코로나 19에 대한 조직신학적 성찰'은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라는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었다. 김정형 교수(조직신학)의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교회를 내다보며'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

〈재난과 교회〉 | 박경수 외 12명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2020



가 극복해야 할 폐해가 무엇이며 또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찰하였다. 이창호 교수(기독교화 문화)의 ‘재난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성찰’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교회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보경 교수(선교학)의 ‘코로나 19가 우리 가정 곁에 바짝 다가왔을 때’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구에서 겪었던 가족의 아픔을 실존적으로 고백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일깨웠다. 최진봉 교수(예배설교학)의 ‘교회 됴의 비밀상성에 대하여’는 재난 상황에서 교회의 예배와 목회적 돌봄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내용을 제안하였고, 이상억 교수(목회상담학)의 ‘재난과 목회상담’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상담적 해석을 제시하면서 영적 자기 관리와 정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경은 교수(영성신학)의 ‘재난을 이기는 영성’은 본보기가 되는 영성가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기도로 제자도를 실천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형섭 교수(기독교교육)의 ‘재난과 교육목회, 위기의 한복판에서’는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미래의 교육목회 생태계를 대비한 혁신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글들은 비록 부족하고 단편적인 성찰이지만,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여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면 저자들에게 이 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은 없을 것이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전 3:1)고 하였으니, 분명 ‘코로나 19’도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제 신학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니게 될 것이다. ‘코로나 19’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등 수많은 새로운 질문과 맞부딪히게 되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이 혼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갈급한 영혼에 매일의 양식인 만나를 제공하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한 신학을 위해 고민하며 분투할 것이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들을 기억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박경수


장신대 교회사 교수이다. 서울대 서양사학과 학부, 장신대 신대원(M. Div)과 장신대 대학원(Th. M.), 미국 프린스턴신학대학원(Th.M, 교회사),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Ph.D, 종교개혁사)에서 공부했다. 저서 및 번역서로 <교회의 신학자 칼뱅>(대한기독교서회), <교회사 클래스>(대한기독교서회), <초빙글리의 생애와 사상>(W. P. 스티븐스, 대한기독교서회), <스위스 종교개혁>(필립 샤프, 크리스찬다이제스트), <기독교 신학사>(윌리엄 C. 플래처, 크리스찬다이제스트) 등이 있다

로베르 쉬망과 유럽연합의 성경적 뿌리

최용준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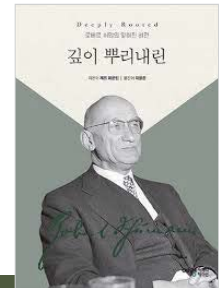
2020년은 로베르 쉬망(Robert Schuman, 1886-1963)이 2차 세계대전 후 1950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유럽연합의 비전을 선언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 후 유럽은 계속 그의 비전을 실현하여 오늘의 유럽연합으로 발전해 왔다. 쉬망은 룩셈부르크 출신이지만 나중에 프랑스 정치가로 활동한 유럽연합의 창시자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양차 대전 후 프랑스와 독일 및 유럽 국가들이 화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쉬망은 다양한 문화를 접했다. 부친은 로렌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이었으나 나중에 이곳이 독일 영토가 되어 독일인이 되었고 모친은 룩셈부르크인으로 결혼을 통해 독일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도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독일인이 되었다가 1919년 알자스 로렌 지역이 다시 프랑스령이 되자 프랑스인이 되었다. 그의 모국어는 룩셈부르크어였지만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웠고 독일 여러 대학에서 신학, 철학, 법 등을 공부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성경도 깊이 연구했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마저 마차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자 그는 수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독신으로 살면서 변호사가 되었고 1차 대전 때에는 건강상 병역을 면제받아 사회봉사를 했다. 1차 대전 후 프랑스 국회의원이 되었고 2차 대전 중에는 레지스탕스운동에 참여하다 게슈타포에 체포되었으나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전후 프랑스 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수상직도 두 번이나 수행하며 공산당과 드골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주장했다. 그 후 외무장관이 되자 전후 유럽이 상호 미움과 불신을 제거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미래 비전으로 1950년 5월 9일, 파리 외무부 청사에서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쉬망 선언’(Schuman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자유, 평등, 단결 및 평화는 기독교적 가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도 성경적 ‘섬김’과 ‘이웃 사랑’에 기초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미래의 연합된 유럽은 기독교적인 동시에 민주적이 되어야 하며 다양성과 통일성도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가능함을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도 이 쉬망의 선언에 동의했고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876-1967)가 전후 초대 수상으로 재직하던 서독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출범하였다. 나아가 1958년에는 유럽의회(European Assembly)가 설립되어 쉬망이 회장에 취임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연합은 5월 9일을 창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이 날은 유럽 현대사에 있어 철의 장막이 극적으로 무너진 것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럽은 그 후 역사에 유래가 없이 70년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

〈깊이 뿌리내린〉 | 로베르 쉬망 | 최용준 역 | 에영커뮤니케이션 | 2020



고 있기 때문이다. 쉬망은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유럽 각료회의(Council of Europe)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도 창설하는 주역이 되었다. 1960년, 건강이 악화되어 은퇴하자 그는 ‘유럽의 아버지(Father of Europe)’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10여 년 전 유럽 예수전도단(YWAM)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제프 파운틴(Jeff Fountain)은 쉬망의 비전을 성경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유럽의 신앙적 유산들을 정리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쉬망센터(The Schuman Center)를 설립했다(www.schumancentre.eu). 본서는 그가 쉬망 선언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는 쉬망의 이 연설이 5억 유럽인들이 오늘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아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그 배후 가치들과 비전이 잊혀지고 있고 북유럽 국가들도 이 운동의 뿌리를 모르며 중부 및 동유럽은 그 근원을 종종 오해한다. 따라서 유럽의 미래는 이 역사와 성경적 가치들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제프 파운틴은 본다.

필자가 본서를 접한 것은 지난 2010년,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에서 사역하며 그 역사 및 쉬망을 알게 된 때였다. 또한 필자는 청년 시절에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유럽연합이라고 주장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본서를 읽고 한글로 번역하여 유럽연합의 성경적 뿌리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양차 대전 이후 쉬망과 아데나워 및 유럽의 기독교 정치인들이 기도하면서 협력한 결과물이다. 특히 쉬망이 자신의 신앙을 정치 영역과 통합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에서 자라 양국 시민권 및 양차 대전을 직접 경험한 후 화해와 평화의 중재자로 쓰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며 섭리라고 하겠다. 본서를 통해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FAITH & LIFE**



✍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투름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쾰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 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성경읽기, 하나님과 통하기

유은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강사)



성경 말씀을 날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다는 것>은 초신자들에게는 물론, 신앙 생활을 오래 해 온 신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우선, 저자는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말씀의 어구 하나하나에 매달려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간과해 버릴 수 있는 문자주의적 태도, 둘째, 성경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신령주의적 태도, 마지막으로 성경을 독자 자신의 필요나 유익을 위해 읽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기복주의적 태도가 그것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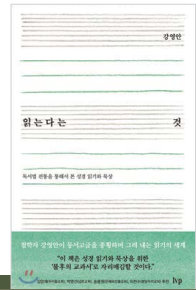
이를 위해 저자는 중세의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영적 독서) 전통과 그와 연계되는 루터의 독서법 및 주자학의 주희의 독서법 전통을 통합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성경 읽기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관상으로 나아가는 렉시오 디비나 전통은 루터의 성경 읽기 방법인 '기도와 성경 읽기, 묵상'을 통한 고난과 영적 시련 극복하기와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을 안내해준다. 이런 견지에서 주희의 독서법 역시 사서와 삼경의 말씀을 허심(虛心)과 평심(平心)을 기반으로 숙독(熟讀)하며 열독(熱讀)함으로써 그 내용이 머리로 깊게 연구되는 궁구(窮究), 성찰되고 마음속 깊이 인정된다는 체인(體認) 뿐 아니라, 전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도를 파악하는 경지로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렉시오 디비나 전통 및 성경 읽기와 통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서양의 이런 독서법을 통해 성경을 읽는 신자는 자신의 좁디좁은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용어를 차용하면 '지평융합'(Horizontverschmelzung)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강포와 압제를 멀리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데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실천으로 귀결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각자의 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의 공교회에 추구해야 할 거룩함과 구별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읽기는 흔히 대학에서의 읽기 방식, 즉 학문적, 스콜라적, 비판적 읽기 방식과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우리의 내적 자아는 그것을 그리 흔쾌히 여기

〈읽는다는 것〉 | 강영안 | IMP | 2020



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성경 읽기 방식이란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수동적 주체 개념과 유사한 ‘수동적 읽기’, 내지는 ‘상처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읽기이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 읽기는 다른 읽기와 차별성이 있다. 여느 다른 책들은 소위 자기계발 및 자신을 위한 독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올바른 방식의 성경 읽기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의 머뭇거림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깊은 고뇌 및 딜레마를 던져주는 읽기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세상의 불의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공감적 읽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성경 읽기는 단지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귀결될 수 없으며, 책 속에 언급된 대로 성경읽기는 삶 속에서의 실천과 밀접히 연관된다. 저자가 언급한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를 비롯해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그리고 에마뉘엘 레비나스 등의 학자들 역시 이 질문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신자는 현실의 불의에 무관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통해 이제 독자들은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성경 읽기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 것인가, 말씀 적용의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가, 공평과 정의의 제도 구축을 위해 신자들은 사회 안에서 일반 사람들과 어떤 공조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런 논의들이 본서에서 제시한 성경 읽기 방식과 더불어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보다 풍성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짧은 서평을 마친다. **FAITH & LIFE**

 글쓴이 유은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강사로서 신학과 학부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IVF 출신이다. 연세대에서 학부, 석사, 박사과정(Ph.D, 기독교교육학)을 졸업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강사를 역임했고, 다문화를 비롯하여 사회정의를 위한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리스도인 교수를 위한 어처구니없는 생각>

추천 : 웨슬리 Wentworth (Wesley Wentworth) 선교사

해제 :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



이 책은 엄밀하게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것이 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 교수 매뉴얼이라고 하는 편 이 정확할 것이다.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 교수의 선교사적 삶의 일부로 정리된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이나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접근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책은 ‘선교사 교수’(missional professor)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처구니없는’(outrageous) 생각이라고 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할까? 바로 ‘선교사 교수’라는 생각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생각으로 비치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교수는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교수의 사명은 학문을 기독교의 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교수는 선교사로서 학생과 동료 교수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하고 학문도 기독교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도대체 저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는 대학생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미국 CCC의 간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아하’ 하게 되었다. 필자도 1973년

에 CCC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거기서 한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했었다. 그러한 까닭에 저자의 주장이나 논조가 개인적으로 전혀 낯설지 않았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CCC는 대학생 선교단체로 복음 전파를 신앙의 중심에 놓는 까닭이다. 저자인 굴드는 CCC에서 간사로 일하다가 자신이 강력한 지적 욕구를 가진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수로 부르신다고 믿고 교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 책은 굴드가 주저자이지만 공동 저자가 여섯 명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수 공동체가 되어 성경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과 학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선교사 교수’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선교사 교수’는 신앙 인격 도야에 힘써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 교수’는 믿음, 소망, 사랑을 진작시켜야 한다. 또한 기독교적인 마음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인 덕성을 갖춰야 한다. 지적 용기, 지적 조심성, 지적 강인함, 지적 공정함, 지적 호기심, 지적 정직성, 지적 겸손이다. 뿐만아니라 ‘선교사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 성취보다는 학생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힘든 일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선교사 교수’의 자기 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무능한 교수가 되어서도 안된다. 굉장한 학문적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학문적

요한서울교회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소개

— 요한서울교회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소개

이정재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담당 안수집사)

요한서울교회(백상옥 담임목사)는 잠실대교 복단에 소재하고, 창립 25주년이 되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엔 힘쓰는 교회이다. 전체 성도의 약 60% 정도가 40대 이하의 젊은 교회이며, 약 10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다. '어린이 기독교 세계관 학교'는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주일학교 교사대학 강사로 오신 유경상 교수님(CTC 대표)의 추천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2016년 상반기 '부모교사 세계관 학교'에 약 40명이 처음 수료하였다. 하반기부터 수료자 중 20가정 정도가 매주 토요일 오전에 모여, '생각'(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어린이 기독교 세계관 학교' 1학기를 시작하였다. 수업 진행(12강)은 부모가 직접 교사가 되어 자녀를 스토리텔링을 통한 토론과 다양한 활동으로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2017년에는 '성품'(2학기)과 '미디어'(3학기) 수업, 2018년부터는 교회건축으로 모임 장소에 제한이 발생하여 '꿈'(4학기) 수업, 2019년에는 '공부'(5학기)를 주제로 1년 동안 12번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새 예배당 입당 후, 2020년 '청지기'(6학기)에 대한 마지막 부모수업을 진행했고 아이들과의 마지막 학기 수업의 꿈에 부풀어 있었으나,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인문고전 독서 모임

2019년에는 '공부'(5학기)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잘 드러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일곱 권 중 두 번째 이야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과 <그리스로마신화>를 가지고 12강 수업을 진행하였다. 작품에 스며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부모 선생님을 대상으로 '나니아 독서 토론회'를 별도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개인적 독서 행위를 넘어 독서 공동체로써 함께 읽기를 진행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더욱더 풍성하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다양한 야외 활동

매 학기 수업 관련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야외 활동을 진행하였다. 파주 출판단지에 위치한 지혜의 숲(24시간 도서관) 탐방, 국립중앙박물관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특별전 탐방, 양화진 탐방, 천안독립기념관 탐방 등이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2018년에 '꿈' 수업과 관련하여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1%에도 미치지 않던 일제치하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의 '기독교 독립운동가 찾기'를 진행하면서, 성경을 실제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이들과 이야기 나눈 일이다. 앞으로 요한서울교회는 1기 '어린이 기독교 세계관 학교'의 열매로 예비된 품앗이 교육 공동체를 통하여, 2기 '어린이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새롭게 세우고, 어린이 인문고전 독서 모임과 다양한 창작 활동들을 기획하고 준비함으로써, 매주 토요일 오전,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 모여 행복한 놀이와 이야기 시간을 갖는 토요학교의 비전을 품고 나가 고자 한다.

요한서울교회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간증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부모 공동체의 탄생

6년 전 '부모교사 세계관학교' 세미나 참여를 계기로 '어린이 기독교 세계관 학교'에 7살 아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마지막 한 학기를 남기고 있다. 처음에는 학교 진학도 하지 않은 아이와 함께 토요일 오전 시간 기독교 세계관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독특한 점은 부모가 먼저 배우고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는 점이었는데, 평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아들 덕분에 소통을 비교적 잘하는 엄마라 스스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30여 명 정도의 아이들과 부모들로 시작된 수업이 순탄치는 않았다. 내용을 부모가 먼저 공부하고 있어야 했고, 아이와 주제에 맞추어 대화를 이끌어야 했다. 말씀 안에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함께 읽고, 내용을 되물어 이야기를 들어주며, 오직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질문에 미리 준비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끌어 가는 수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몇몇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다.

당황하게 한 것은 매 학기 12장으로 이루어진 수업의 강의를 부모 중 12명이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도 양쪽 옆에 아이들을 끼고, 우리 집 딸 아들이듯 함께 수업을 이어 나갔다. 초기에는 아찔한 경험이었지만, 조금씩 익숙한 엄마 선생님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학교에서 배운 것에 더 붙여 율동을 만들었고, 글 잘 쓰는 엄마 선생님의 연극 대본 만들기, 아빠 선생님들의 깜짝 연극으로 아이들은 놀랐고 '내 아빠, 내 엄마'의 새로운 모습에 아이들이 기뻐하였다. 특별히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 교육되어야 한다"는 유경상 교수님의 말씀이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믿음의 가정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던 우리 집에 '하나님 사랑, 세상 돌봄, 이웃 사랑'이라는 가훈이 생겼다.

나는 아이들의 간식 당번 엄마도 되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엄마, 아빠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3학기 시작 즈음에는 참여 가정이 많이 줄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14가족 24명 정도의 아이들로 구성되었다. 엄마, 아빠 선생님들은 수업을 이끄는 모습은 점점 능숙해지고, 여유가 생겼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나타난 세계관 변화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해진 정답이 아닌, 아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이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에 놀라움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에 아이를 끼워 맞추려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성품', '미디어', '꿈' 등의 주제를 가지고 삶 전체의 규칙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었고, <나니아연대기> 읽기는 '베드타임 책 읽어주기' 운동을 하면서 고전 책 속 창조세계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사자 마녀와 옷장'의 옷장을 만들어 직접 냄새도 맡아보고 나만의 나니아를 찾아보고, 에드문드가 달콤한 유혹을 느꼈던 하얀 마녀의 터키 젤리도 먹어보고, 돌 탁자 위의 아슬란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아슬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해 보니 그냥 스치는 책이 아니라 하나하나 생생한 추억이 되었다.

지난 5년 시간을 뒤돌아보며 가장 큰 축복이라 느낀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부모공동체가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다.

 글쓴이 오현숙

요한서울교회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부모 선생님



2020년 2차 실행위원회 개최

일시: 2020년 7월 27일(월) 오후 7시, 장소: Zoom 화상 회의

참석: 박동열, 강진구, 김대인,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진규, 송태현, 박문식, 이상민, 이재희, 최용준 (이상 12명)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0년 임시총회 개최

일시: 2020년 8월 10일(월) 오후 8시 / 장소: Zoom 회의

참석: 27명 대의원 중 19명 출석

안건: 임기 만료 최현일 감사 연임 결정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감사(연임) 서울 교육청 승인

최현일 감사 (샘병원 연구원장, 2020. 08. 21 ~ 2022. 08. 20)

37회 기독교학문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주제: 생태, 환경, 그리고 건강

일시: 2020.10.31.(토) 10:00~18:00

장소: 국립목포대학교 대외협력관, 제5공학관(Zoom & YouTube 현장중계 병행)

주최: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신우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주제강연: 유영춘 교수(건양대 의대), 홍종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노영상(송실 사이버대 이사장)

* 분과발표논문신청안내(대학원생 분과 & 일반/교수 분과): gihakyun@daum.net

* 논문신청마감(9/16, 수), 논문요약/초록(10/2, 금), 논문제출마감(10/16, 금)

* 자세한 사항은 동역회 홈페이지(worldview.or.kr) 포스터 참조(문의: 02-3272-4967, 010-3222-6567)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 사 박영주(前 중앙기독교총회 교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카나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최현일(샘병원 의사)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성경(VIEW 실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문준호(디오스텍 부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송태현(이화여대 교수), 이상민(서울국제교사),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대표),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총 무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송태현(이화여대 교수, 불문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신학), 김종훈(성신여대 교수, 교육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곤(한동대 교수, 외과학), 신응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우종학(서울대 교수, 물리천문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현은자(성균관대 교수, 아동청소년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Paul Lim(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VIEW(전성민 대표)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Graduate Diploma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2021년 봄학기부터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과정(M.Div – WPS)이 새롭게 개설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강사 '기본 과정' :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년 동안 40여 명의 교육생이 매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내년에는 어린이 & 청소년 세계관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 9월부터 3학기, 4학기가 진행될 예정.
-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 :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교과 교육 프로그램이다. 부모가 먼저 배워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하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다양한 세미나와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시로 가입이 가능하다(문의: CTC 사무국, 010-3673-8439). * 9월부터 <나니아 연대기 - 말과 소년> 개강
- 온라인 '부모교사 세계관 학교' 개설예정 : 2020년 하반기에 '부모교사 세계관 학교' 원리 6강, '부모 세계관 학교' 실제 6강, 총 12강을 온라인으로 개설 예정이다. 또한 '부모교사 세계관 학교'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온라인 어린이 세계관 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의 이다.

www.cupbooks.com 문의 : cupmanse@gmail.com | 02-745-7231



CUP 로고를 새로 만들었다. 새 로고는 CUP(씨유피)를 CPU(씨피유)로 읽는 등 혼란이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 컵을 연상케 하는 컨셉으로 잡았다. 세상의 참된 지혜를 담은 그릇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값진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지향한다.



〈생각, 하나님 설계의 비밀〉,
〈성령의 열매〉가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최용준 교수님(한동대)의 신간
〈성경적 세계관 강의〉(2020)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동대 '기독교 세계관'
수업 교재입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0년 6월, 7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0년 6월	2020년 7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0년 6월	2020년 7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470,000	470,000	인건비	일반급여	4,600,000	4,600,000
	임원회비	460,000	560,000		기타급여	600,000	600,000
	일반회비	4,688,500	4,123,500		소계	5,200,000	5,200,000
	기관후원금	2,850,000	2,600,009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000,000	2,00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0	0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08,590	102,230
	CTC후원금	70,000	90,000		우편료	4,050	24,570
	VIEW후원금	1,050,000	1,040,000		소모품비	0	32,500
	기타후원금	2,000,000	2,000,000		비품	0	0
	월보구독료	439,500	394,000		수선비	0	0
	학술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479,320	507,09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퇴직연금	225,670	225,670
	기타	360,000	220,000		컴퓨터	0	0
					교육비	0	0
					회의비	0	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기타수입	소계	12,388,000	11,497,509		여비교통비	93,400	500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사무비	156,200	356,200
	법인이자	0	0		기타(지급수수료)	120,670	119,570
	법인세환급금	9,810	0		소계	3,242,900	3,423,330
	기타수입	0	0		연구회연구지원	0	0
	기금차입	400,000	0		도서구입비	0	0
	결산이자	7,507	0		CTC후원금	69,620	69,175
	예수금	280,920	296,070		VIEW후원금	892,470	1,220,320
					학술지원금	0	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10선컨텐츠	0	0
					소계	962,090	1,289,495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0	0
					인쇄비	5,046,800	0
					발송비	532,200	533,440
					소계	5,579,000	533,440
				기타	웹진원고료	0	0
					CUP기금적립	400,000	0
					세금	2,540	39,920
					잡비	91,500	7,000
					소계	494,040	46,920
	소계	698,237	296,07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학회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기타	44,000	0
	소계	0	0		소계	44,000	0
	학회이사회비	170,000	17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심사비	210,000	210,000		학술지인쇄비	0	3,211,818
	학술지게재료	3,555,000	422,500		학술지발송비	0	988,71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1,000,00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조교비	0	0
					학회기타	150,000	0
	소계	3,935,000	802,500		소계	150,000	5,200,528
전월 미수금	전월 CMS 입금	862,280	951,50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951,500	896,885
	전월 이니시스 입금	57,888	16,402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0,000	7,000
	소계	920,168	967,902		소계	961,500	903,885
당월 수입액		17,941,405	13,563,981	당월 지출액		16,633,530	16,597,598
전월 이월액		23,304,130	24,612,005	차월 이월액 (잔액)		24,612,005	21,578,388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0년 6월)

3천 김성권, 3천5백 박도명, 김봉현, 김선택,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무,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은, 김정명, 김정심,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천규, 범경철, 손영경, 송시설, 유종철, 유화원,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이경우, 이윤택, 이은수,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고길현, 고세일, 고용재, 고현경,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옥,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도형, 김동원, 김막미,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성욱, 김선택, 김성경,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세중, 김수빈, 김수진, 김신성, 김아람, 김아름, 김여은,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용국, 김유식, 김유니스, 김윤관, 김은덕, 김은태, 김재만, 김재정, 김경모, 김정일,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숙, 김현정, 김혜정, 김홍성, 김효숙,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수진,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모아름, 문제환, 박능안, 박동현, 박복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름, 배지연, 백경은, 백상현, 백요한,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종철, 송철호,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진호,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병일, 안석, 안선자, 안성희, 양성진,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석현,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치상,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민하,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환,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길, 이정옥, 이정일, 이종철, 이종선, 이지연, 이진희, 이혜리, 이행로,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병국, 전성규, 전항록, 정경식, 정다은,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성지,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정숙,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현, 조창희, 조철수,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은정, 최준민, 최한빈, 최혜경, 추진원,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진영, 허현, 홍구화, 홍대하,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원,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2만 David Han, 강용란, 강혜영, 김남중, 김보경, 김상일, 김세광, 김수홍,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김홍빈, 박계호, 박기모, 박종화, 박홍식, 배성민, 백은석, 빛과소금교회, 송찬호, 엄준용,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진, 이근호, 이기서, 이주은, 이현중, 장인석, 정동섭, 정훈, 채기현, 채일,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구, 김경민, 김동원, 김병룡,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은실, 이창우, 임희옥,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화, 황영철, 황정진, 4만 문석은, 박순자, 우병훈, 5만 김종우, 김택호, 박정식, 서진희, 양승훈, 윤명식, 윤석찬, 윤원철, 이대경, 이상민, 정은애, 한운식, 현은자, 6만 김정희, 석준중, 조규봉,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박영주, 손동호, 신국원, 이원삼, 장수영, 정점연, 최현일, 12만 강태웅, 김성현, 조용호, 20만 손정엽

계 7,268,000원

기관후원

5만 개동교회, 고암제일교회, 마포중앙교회, 새언약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다은공동체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세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향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40만 삼일교회, 200만 (주)이상네트웍스

계 4,900,000원

전체 12,168,000원

회원후원

(2020년 7월)

3천 김성권, 3천5백 박도명, 김봉현, 김선택,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무,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은, 김정명, 김정심,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천규, 범경철, 손영경, 송시설, 유종철, 유화원,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수인,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이찬수,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이경우, 이윤택, 이은수,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가용길,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세일, 고용재,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옥, 김근배, 김기현, 김남중, 김남진, 김도형, 김동원, 김막미,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성욱,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세중,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성, 김아람, 김아름, 김여은,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용국, 김용식, 김유니스, 김윤관, 김은덕, 김은태, 김재만, 김재정, 김경모, 김정일,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숙, 김현정, 김혜정, 김홍성, 김효숙,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수진,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모아름, 문제환, 박능안, 박동현, 박복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름, 배지연, 백경은, 백상현, 백요한,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종철, 송철호,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진호,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병일, 안석, 안선자, 안성희, 양성진,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치상, 유해무, 유화원,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환,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길, 이정옥, 이정일, 이종철, 이종선, 이지연, 이진희, 이혜리, 이행로, 이현중,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항록, 정경식, 정다은,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정숙,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창희, 조철수,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은정, 최준민, 최한빈, 최혜경, 추진원,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진영, 허현, 홍구화, 홍대하,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원,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정상섭, 2만 강용란, 김은우, 김보경, 김세광, 김용식,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배성민, 송찬호, 송태상, 심은희,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진, 이근호, 이기서, 장인석, 정동섭, 정훈, 채기현, 채일,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구, 김경민, 김동원, 김병룡,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화, 황영철, 황정진, 4만 문석은, 박순자, 우병훈, 이덕영, 5만 김종우, 김택호, 박정식, 양승훈, 윤석찬, 윤원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정은애, 한운식, 6만 석준중, 7만 박문식, 최태연, 황인경, 10만 박영주, 손동호, 신국원, 이형직,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민철, 장민호, 현창기

계 6,767,500원

기관후원

5만 개동교회, 고암제일교회, 다은공동체교회, 마포중앙교회, 새언약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메도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세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향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30만9천 Calvary Korean Church, (해위송금) 200만 (주)이상네트웍스

계 4,650,009원

전체 11,417,509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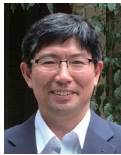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디오스텍 부장,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정회원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정회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정회원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안양대 교수,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셔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주)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주)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

37th Annual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생태, 환경, 그리고 건강”

2020.10.31(토)

10:00 ~ 18:00

국립목포대학교

대외협력관/제5공학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 창조질서의 관점에서 본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면역체계의 변화
-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성: 기독교인의 관점
- 건강도시 운동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패널토의 사회 김지원 교수 백석대, 보건학

유영춘 교수
건양대 의대, 미생물학

홍종호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경제학

노영상 교수
송실사이버대 이사장, (전)호신대 총장



현장중계 병행
YouTube



Zoom

분과 발표 논문 신청 안내 (대학원생 및 일반분과)

(형식) 주제발표 ▶ 현장중계, 대학원생분과 ▶ 현장중계, 일반분과 ▶ 실시간온라인 또는 현장중계

논문신청마감: 9. 16(수)까지

초록 또는 요약본: 10. 2(금)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여부 포함)

논문제출마감: 10. 16(금)까지, A4지(약 10쪽 이내)

(분야) 지역특별분과, 생태/환경/건강, 세계관/신학/철학, 경제/경영/법학, 문학/예술/문화, 사회복지/상담심리/사회과학, 자연과학/의학/공학, 교육학/윤리 등

*대학원생 논문은 심사 후 우수논문상(상금, 새로남교회 후원)을 시상합니다.

*마감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발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orldview.or.kr

▶ 투고시스템제출: fs.jams.or.kr

▶ 메일제출: gihakyun@daum.net

ON AIR

▶ 신청 · 참가: bit.ly/kacs37



문의 | 02-3272-4967, 010-3222-6567(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

주최 |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신우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주관 |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후원 |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새로남교회

목포사랑의교회